

나는 자랑스러운 로타리안



글. 지구 맞이행동호회 회장 이정선
서울소통RC 직전회장



아브라함 매슬로우 [1909~1970 Abraham Maslow 하버드 심리학교수]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발표하였는데 5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하여 성취하려는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했다. 그 후에 심미적 요구, 인지적 욕구, 초월적 욕구 3가지를 추가해서 새로운 8단계를 발표했는데 8단계 중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를 “초월적 욕구”라고 했다.

초월적 욕구란 타인이 자아실현을 하도록 도와서 타인의 자아성취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도와준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만족을 말한다. 이러한 초월적 욕구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봉사, 기부, 희생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세상에 많은 단체, 모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욕구 최고 단계인 초월적 욕구를 만족 시키는 단체가 있다. 봉사를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타인의 초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세계 봉사의 항공모함’이 바로 국제로타리다. 우리가 속해있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역시 그러한 자랑스러운 글로벌 조직의 한 지체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때로는 외롭고 적막한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렇기에 굶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정을 나누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외로움이다. 고독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그 누구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로타리안들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현상과 동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로타리 활동 속에서 봉사를 하면서 초월적 욕구를 느끼고, 우정과 사랑, 그리고 상호신뢰를 통해서 소통하며 서로 격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지구 동호회를 통하여 취미 생활과 봉사를 하면서 행복의 요소가 되는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27년 동안 로타리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실망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잘 참고 견디었구나’ 하고 나를 위로하면서 로타리를 떠나지 않았음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로타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이 낮아서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우리 집 두 딸이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입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자랑스런 경기 어린이’ 라는 선서다. 어린 딸이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학교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길거리에서 절대 음식물을 사 먹지 않는다.

그리고 되도록 남에게 양보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학교가 자랑스러운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시키므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한 경기 어린이로 자라게 만든다.

우리 로타리도 자긍심을 가질만한 훌륭한 조직이다. 인간의 욕구의 최고 단계인 초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멋진 단체다. 이 거대한 ‘로타리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봉사도 거뜬히 해 내고야 마는 열정이 우리들 가슴에 이글거린다. 봉사를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로타리인들의 특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두 마리의 개(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그 두 마리 개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다. 우리는 이 두 마리 개를 마음 속에서 없애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우정강화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면서 실제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봉사의 기회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슴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로타리안이 되기를 원한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다함께 봉사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봉사 체험을 통해 이웃을 행복하게 해 줄 때에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구나 클럽 그리고 지구동호회를 통해 제공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로타리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와 소통을 통해 얻어지는 평생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다. “안 보면



3650지구 맛기행 동호회 모임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맛기행동호회는 지난 2014년 결성되어 이상원 초대회장에 이어, 이정선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서 동호회를 이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이순동 총재와 함께 다녀온 가평 맛기행 동호회 모임.

보고 싶고, 못 보면 그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로타리안들이다.

2018년에는 더욱 새 힘을 얻어 봉사의 현장을 누비는 로타리안이 되어 자긍심을 갖고, ‘나는 자랑스러운 로타리안’ ‘나는 행복한 로타리안’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사랑과 우정을 증폭시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을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로타리안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갖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